

“성수산 왕의 숲길 맨발로 걸어요”

임실군, 고려·조선 두 왕조 건국 기도터로 유명… 황토길 맨발 걷기 길 개장

“성수산 왕의 숲 황토길에서 물소리, 새소리 들으며 몸과 마음을 달래며 맨발로 걸어보세요.”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임실군의 대표 명산인 성수산 왕의 숲에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맨발 걷기 길이 개장했다.

이번에 조성된 맨발 걷기 길은 총연장 1.15km 거리로 2구간의 황토길로 조성되어 맨발로 걷는 즐거움과 건강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숲속에서 왕의숲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는 길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힐링과 여유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수산은 예로부터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개국에 대한 전설이 깃든 신령스러운 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왕의숲 맨발 걷기 길”은 역사적 의미를 품은 자연 속에서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왕의숲 맨발 걷기 길은 연중무휴로 가족 단위 방문객, 등산객,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을 즐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숲속도서관, 편백나무 명상 숲 등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건강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임실군의 대표 명산인 성수산 왕의 숲에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맨발 걷기 길이 개장했다.

됐다.

군은 그동안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품은 왕의 숲 성수산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했다.

고려 왕건과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드려 왕이 됐다는 설화가 담긴 성수산 상이암을 중심으로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전국적인 기도 명산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군은 기존 개인 소유의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매입하여 노후 시설물들을 철거 후 산림휴양관 본관 신축 및 별관 리모델링을 추진, 지난해부터 정식으로 개장에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숙박비 할인으로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숙박시설로 각광 받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고려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의 기운이 담긴 성스러운 산인 이곳에서 숲길 따라 물길 따라 황토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조성했다”며 “또한 이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도 잘 만들어 놔으며, 임실방문의 해인 올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성수산의 좋은 기운을 받아, 원하시길 바라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남원시,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곤충사육 농가 애로사항 청취

남원시는 지난 11일, 관내 곤충사육 농가 중 9개소를 방문해 곤충사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으로 관내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갈색거저리, 동애등애, 흰점박이꽃무지, 생별귀뚜라미 등의 곤충사육 농가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

며 사육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곤충사육 농가가 사육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와 조성 이전까지 농가소득 창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부분 농가가 곤충산업에 대한 기대와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개별 농가가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판로 확보 및 홍보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

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체계 기반 확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남원시는 매월 1회 이상 농가협의회를 통해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행사 등을 활용한 부스 운영과 관련 사업 예산 확보 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족한 곤충산업 활성화 민간협의체를 통해 산·학·관·연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생산 체계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와 소비자 인식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기능성 발굴 연구도 지속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GAP 인증 심사·검사비 전액 지원

남원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GAP 인증 심사·검사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GAP 인증 비용을 부담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

지하고 있는 농가이지만, 각 항목별 분석 결과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인증 수수료, 농경지의 토양 중금속 및 용수 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에 해당하며, 인증에 소요된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

며, 신청은 연 3회에 걸쳐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올해 1차 신청은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신청자는 신청서, GAP 인증서 사본, 검사증명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은 7월, 3차 신청은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15일, 화장품 전문기업 ㈜코빅스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코빅스, 상생협력 맞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ESG 경영 실천 위한 협약 체결

남원시는 15일, 화장품 전문기업 ㈜코빅스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역 대표 브랜드의 기획 및 마케팅 협력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축제 참여와 복지단체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ESG 경영을 확산하고,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과 연계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근로자 복지 향상

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협약에 앞서 ㈜코빅스는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700만 원 상당의 1,580종 물품을 기탁하고 남원시 사회복지재단에 2,100만 원 상당의 삼푸 851개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실천 기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코빅스 김중희 대표는 “남원시의 믿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만들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교유의 자원과 기업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빛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섬진강 무료 카누·카약 체험교실 운영

순창군이 봄기운 가득한 섬진강에서 특별한 물놀이 체험을 선사한다.

오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순창군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 면에서 펼쳐지는 ‘수상레저기구 체험교실’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수상레저연맹이 주관하는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래프팅가이드의 수상안전 및 노 젓는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카누·카약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체험 장소인 유등면 화탄마을은 순창의 보물이라 불리는 용골산 하늘길과 차로 단 15분 거리에 위치해,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일석이조의 매력을 선사한다.

산과 강, 두 자연의 숨결을 하루에 모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체험 신청은 전화(섬진강수상레저연맹, 063-652-6520)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시간대별로 탑승인원 20명, 일 최대 100명 이용할 수 있고, 예약인원 미달 시에는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 운영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오셔서 섬진강의 자연을 만끽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보건소, 한방 난임 부부 지원 참여자 모집

남원시보건소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은 나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6쌍으로, 보건소에서 1차 심사하고 전북도 한의사회에서 신청서와 난임 진단서 등을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치료 과정은 관내 지정 한의원(14개소) 중 원하는 곳에서 4개월간 기본 치료와 추가로 2개월간 경과 관리·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치료 시작일부터 6개월 동안은 양방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은 받을 수 없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남원시보건소 모자상담실(063-620-7983)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도21호선 개운치터널 방제 시설 보수공사…교통 통제

남원국도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방제시설 보수공사로 인해 순창군 췌치면 방산리 국도 21호선 개운치터널 4.3km 구간이 15일부터 30일까지 일시적으로 교통이 통제된다.

순창군에 따르면, 남원국도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방제시설 보수공사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운치터널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총 16일간 하루 7시간씩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공사 구간에 안전 시설물과 신호수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전광표지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통제 사실과 우회도로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가정폭력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